

월요광장

학생의 꿈과 끼 실현을 위한 인성교육

이승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올해 학생의 꿈과 끼 실현을 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20%로 확산된다. 이 제도를 연구하거나 도입을 원하는 학교 600개를 선정해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근 학교로 범위가 넓어진다. 나아가 일반학기와 고등학교까지 꿈과 끼 교육활동이 연계되도록 지원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미 제주도교육청이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돼 제주도 44개 모든 중학교가 올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했다. 전남에서는 순천 지역 16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로 전환됐다.

교육부가 전국에 추진하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최근 외국에서는 청소년에게 새로운 환경 적응과 함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또 지식의 수용과 암기보다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역량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이탈랜드 전환 학년제(Transition Year), 덴마크 애프터스쿨, 스웨덴 진로체험 학습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고안한 것이 자유학기제이다. 이 제도를 2013년 42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해본 결과,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 강화가 가장 큰 변화로 받아들였으며 수업시간이 재미있고 기다려진다고 하였다. 학습에 관한 흥미와 몰입도도 높아졌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우관계가 좋아지고 자유학기 동안 자녀가 학교 진로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자유학기제가 정착하여 좋은 성과를 내려면 학교와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하려면 차지단체, 지역 사회 인사, 학부모, 교원 등이 공동 노력과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구축 여부가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로서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확산에 부응하여 자유학기를 활용한 인성영재 교육에 주목하고 싶다. 이는 벤자민인성영재학교이다. 이 학교는 지난 4일 개교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삶의 목표를 흥미의 가치에 두고 뇌교육적 방법을 활용하여 인격 완성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성영재를 양성한다.

인성영재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집중력,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 자기 주도적으로 도전하고 만들어내는 창조력,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책임감,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포용력을 갖춘 인재이다.

벤자민인성영재학교는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커리큘럼으로 통합 관리한다.

인성영재 덕목을 함양하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 국내외 지구시민캠프, 국토순례, 봉사 활동 및 흥미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1년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 또 외국어, 운동, 예술 등 지역적 소양과 과목 공부 및 자기계발, 자기관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1대1 관리를 한다.

한국뇌과학연구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가 벤자민인성영재학교를 지원하며 교수, 변호사, 의사, CEO, 예술인 등 전문가 40여 명이 멘토로 다양한 멘토링 교육을 한다. 고등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기관, 전문가들이 힘을 합친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교육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 혹은 방법이다. 21세기에 인성의 가치는 아는 사람이 인재로 대접을 받는 세상, 그리고 인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자유학기제, 벤자민인성영재학교가 그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도지구' 도입도 눈에 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추진 방식이다. 과거와 달리 지역이 발전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형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획일성을 극복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주민에 밀착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전남의 경우 특별발전 프로젝트로 문화·콘텐츠산업과 서남해안 해양관광을 각각 선정했다. 또 중주도시권 3곳과 도농연계권 4곳 등 모두 7곳의 지역행복생활권을 지정해 교통 등 사회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이ول러 광주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고, 대불국가산단 등 노후 산단단지의 리모델링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에 공장 설립 허용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공장운영자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에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도 예매하다. 정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을 뒷받침해려면 주원조 달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5+2 광역 경제권'처럼 발표 때만 잠정빛이고, 정권 말기에는 무위로 돌아간 전철을 밟지 않으면 추진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조칼럼

광주에서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

서민석
광주지검 검사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필자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던 부분은 주인공인 폭력조직원 진배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두목인 수호를 면회하는 장면이었다.

1980년 5월 당시 속칭 '건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부끄러워하여 대낮에는 금남로를 걷지 못하는 수호의 기억, 수호와의 첫 만남에서 진배가 던진 '당신...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면서 광주에서 사는게 부끄럽지 않아?'라는 질문...

비록 진배가 수호에게 한 대사였지만 '부끄럽지 않아?'라는 그 질문은 필자의 정신도 번쩍 들게 하였다. 광주시민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는 그 질문은,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광주에서 보내 필자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내 고향 광주는 지금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광주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만을 따져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7개 광역도시 중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견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전국의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근무하게 되지만 작년 광주 부임 이후 느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편도 1차선의 골목길은 물론 편도 3~4차선 이상의 대형 도로에서도 가장자리 차선에는 항상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며,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있었다.

필자는 4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차량을 겨우 피했는데 또다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여 급정거 한 경험이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정도의 경험을 거친다면 내 고향 광주는 지금 '부끄럽지

경험은 별 것 아니라는 다른 동료들의 이야기였다. 34년 전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했던 광주의 시민의식은 교통질서 부문에서 왜 전국 최하위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었을까?

광주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잊어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는 아닐까? 나만 조금 빨리 가고자 하는 생각, 나만 조금 편하게 가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교통사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진배의 질문에 과연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답할 수 있을까?

차선과 신호를 지키는 일,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일들에 대한 작은 실천이야말로 광주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의 시작이다. 진배의 그 질문에 내 고향 광주시민 모두가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社說

지역발전대책 재원 조달부터 명확히 해야

정부가 최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시·군을 56개 지역행복 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짜는 것이 골자다.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와 지원책도 내놓았다.

광주·전남의 경우 특별발전 프로젝트로 문화·콘텐츠산업과 서남해안 해양관광을 각각 선정했다. 또 중주도시권 3곳과 도농연계권 4곳 등 모두 7곳의 지역행복생활권을 지정해 교통 등 사회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이울러 광주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고, 대불국가산단 등 노후 산단단지의 리모델링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에 공장 설립 허용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공장운영자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에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

조선대 이사회 '자리 싸움질'로 날 샐건가

조선대 2기 법인이 이사회의 이사장 선출이 또 다시 무산됐다. 2기 이사회를 이끌어 이사장 선임을 놓고 이사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사회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이사장을 뽑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정이사 5명과 개방이사 3명 등 이사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선출에 나섰으나 투표 결과, 득표 수 부족으로 이사장을 선임하지 못했다고 한다. 제3의원 9명의 과반수를 얻어야 하는 이날 표결에는 강현우 전 이사장과 유세희(전 한양대 부총장) 이사가 후보로 추천돼 제1차 표결에서 강 이사가 4표를 얻고, 유이사 3표, 무효 1표가 나왔다.

2차 투표에서도 같은 표차가 나옴에 따라 이사회는 더 이상 투표를 계속하지 않고 폐회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2기 첫 회의에서도 '개방이사의 이사장직 요구안'이 나오면서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無等鼓

시 색깔 논쟁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이 노랑을 상징색으로 채택하자 민주당은 "민주당원의 한과 눈물의 색인 노랑이 배신자의 색깔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반대로 보수적인 공화당이 파란색과 보수적인 민주당이 빨강을 사용한다. 요즘에는 한국도 정당 성향에 따라 고유 색깔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당의 금기색으로 여겨지던 빨간색을 택했고 민주당은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며 파란색을 달았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의 이름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꿔면서 당의 상징색을 '비파파랑(seablue)'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색인 '태극파랑(cobaltblue)'과 새정치연합색인 '하늘파랑(skyblue)'의 중간색을 택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한다.

신당 주진단은 "바다는 씩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정치가 지향하는 투명한 정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난간 끝에 끌어낸 합의라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색(色)의 정치'가 아니라 '색깔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정필수 정치부장 bungy@kwangju.co.kr

기고

24일은 '결핵예방의 날'... 결핵 퇴치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

민영돈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장
조선대 의대 교수

봄이 되면 중국과 몽골 사막지대에서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는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되고, 다양한 호흡기질환 환자가 증가한다. 그런데, 물에는 새로운 불청객이 등장했다. 바로, 최근 기상예보에 빠지지 않는 '미세먼지'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경우 코고 작은 호흡기질환을 유발 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은 제약을 가져다준다.

필자가 서두에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바로 놀 우리 곁에 존재해 왔고,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는 '결핵'을 말

하기 때문이다. 결핵은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하지만, 결핵의 85%는 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호흡기질환이기 때문이다. 결핵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랑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 국민은 이들에는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결핵은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있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의 하나로, 기원전 7000년경 석기 시대 학석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후부터 오늘날까지 결핵이 걸리면서 번지면서 전 세계에 걸친다. 우리나라의 결핵증상은 전국적으로 30%가 결핵감염자로 추정되어 온 곳에 비주어 보면 현재는 광복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 이는 1962년부터 대한결핵협회와 보건소 중심으로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결핵환자가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연간 4만 명의 결핵 신환자가 보고되고 있고, 감소 속도도 점점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령층뿐만 아니라 20~30대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등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8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결핵퇴치까지는 여전히 길 길이 멀다.

2014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잠복 결핵감염자 치료, 대국민홍보

강화, 인력·예산 등을 확대해 연평균 최대 10% 수준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핵퇴치사업을 수행하는 협회도 연간 16만 명의 결핵균검사 및 150만 명의 X선 검진을 실시해 정부의 결핵관리사업에 밭맞추며 결핵 초기퇴치를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4일은 '제4회 결핵예방의 날'이자 '제32회 세계결핵의 날'이다. 국민에게 결핵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도 시민참여 행사인 '무료 결핵검진'을 전남은 20일 순천시 북부재래시장에서, 광주는 24일 유스퀘어 광장에서 X선 활영, 갑담검사, 혈액, 당뇨 등을 검사하여 결핵증인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결핵'은 과거의 질병이 아닌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질병임을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 결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도민 모두의 협조와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다.

가능성도 크다.

사실상 신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보니 법적으로 금지된 청소년 혼숙도 자주 일어난다. 실제 인터넷 카페 등에는 10대 청소년들의 무인모텔 사용 후기가 쉽게 발견될 정도다.

청소년들의 '무인모텔 사용 노하우'를 보면, 무인모텔 중 신분증 확인하는 기계를 설치한 곳이 어디니 피하라는 등 어차피 얼굴을 확인하지 않으니 타인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된다는 등의 글이 버젓이 올리고 있다.

▲장영환·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신분 확인 안되는 무인모텔, 청소년 탈선 장소 악용

요즘 사생활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무인모텔이 무척 많이 생겨났다. 광주시와 전남도 외곽 지역과 심지어 시내에도 대형 플래카드에는 "무인모텔, 3만원"이라는 글씨가 써져 손님을 불러들이고 있다.

무인모텔은 돈을 내고 입장해서 나올때까지 관리 직원을 볼 수 없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띠는 카운터에는 직원이 아닌 방 내부를 보여 주는 커다란 모니터가 있고, 긴 복도를 따라 줄지어 있는 방 안에

는 직접 현금 혹은 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돼 있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제외하면 지켜보는 눈은 그 어디에도 없다. 모든 게 '자동화'다.